

TV

TV 21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4 columns: KBS1, KBS2, MBC, KBC/SBS.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Table with 3 columns: EBS, EBS플러스1, EBS플러스2.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지상과 예능, 정통 코미디 바람 분다

‘놀러와’·‘황금어장’ 등 장년 게스트 섭외해 향수 자극

지상과 예능 프로그램에 복고 바람이 거세다. 시대를 주름잡던 장년의 스타가 게스트로 출연, 추억담을 풀어놓고 과거 시청자들을 웃겼던 정통 코미디가 다시 등장했다. 복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중년층 시청자들을 TV 앞에 붙잡아 놓으며 방송가에 또 다른 자극제가 되고 있다. ◇장년의 스타 게스트 공략=복고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는 MBC 토크쇼 ‘놀러와’다. ‘놀러와’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스트들을 초대해 시청률과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. 벨런타인데이였던 지난 14일 방송의 주제는 ‘황혼의 로망스’였다.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이순재, 윤소정, 김수미, 양택조, 김자옥 등 중견 배우들은 과거 연애담을 들려주며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. 지난 9월말 방송된 ‘세시봉 친구들’ 편은 큰 반향

을 불러일으켰다. 송창식, 윤영주, 조영남, 김세환 등 출연자들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은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며 자체 최고 시청률로 이어졌다. MBC ‘황금어장-라디오스타’에서도 향수를 자극하는 게스트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. ◇복고풍 콘셉트 프로그램 제작 잇따라=단순히 게스트 초대에서 벗어나 복고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. MBC는 최근 정통 코미디쇼 ‘웃고 또 웃고’를 신설했다. ‘웃고 또 웃고’는 2000년대 초반 ‘오늘은 좋은 밤’의 인기 코너 ‘추억의 방울방울’을 비롯해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던 콘트 형식이 주를 이룬다. 젊은 개그맨들과 함께 홍기훈, 서승만, 김경식 등 MBC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배 개그맨들이 출연한다.



〈박원숙·임현식〉

지난 17일에는 ‘한지붕 세가족’이 순돌이네 부부로 출연한 박원숙과 임현식이 17년 만에 동반 출연했다. ◇“장년층에게는 향수, 청년층에는 신선함”=복고풍 프로그램은 장년층에게는 향수를,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. ‘놀러와’의 신정수 PD는 20일 “TV가 올드 미디어가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년 시청층이 더 집중하는 면이 있다. 그렇지만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얘기가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 향수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신선함으로 다가간다는 설명이다. 복고 콘셉트의 인기가 수년째 예능계를 지배해 온 리얼 버라이어티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. /연합뉴스

제7회 시구정장배. 좋아하는 스타일. 최강부 준결승전 2국 6보(91~113). White 6 stones, Black 6 stones.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a photo of a man.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. 2월 21일(음 1월 19일 丁未). 운세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.

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: 1. English (It's not my job to clean the building), 2. Japanese (氣をつけてね), 3. Chinese (毛病 máobìng), 4. Korean (九死一生(구사일생)).